

『璿源系譜紀略』英祖7年本 刊行過程考*

A Study on the Process of Publishing *Sonwon-kyebo-kiryak*
King Yeongjo' 7th Year Edition

윤인현 (Yoon, In-Hyun)**

◁ 목 차 ▷

- | | |
|------------------------|---------------------|
| 1. 緒言 | 3. 英祖3年本과 英祖7年本の 비교 |
| 2. 刊行 當時의 史的 背景과 王族 事情 | 4. 結言
<참고문헌> |
| 2.1 刊行 當時의 史的 背景 | |
| 2.2 王族의 事情 | |

< 초 록 >

『璿源系譜紀略』英祖7年本은 당쟁이 다소 무마된 상황에서 英祖 7年 12월 4일에 간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英祖의 관심도는 前例와 달리 미약하였다. 당시에 孝章世子가 薨逝하고, 두 新生翁主가 早卒하고, 王大妃 宣懿王后가 昇遐하였고, 和平翁主의 封爵이 있었으며, 長陵을 遷陵하였다.

英祖3年本에 대비하여 ‘凡例’에서 그 항목 수가 29個條에서 32個條로 늘어나면서 10行을 補空하였고, ‘璿源世系’에서 3張을 改板하였으며, ‘璿源系譜紀略 卷之六’의 第1, 2張을 改板하였다. 결국 補空木 약간과 兩面을 板刻할 수 있는 새 木板 3立이 소용되었을 것이며, 英祖3年本을 모두 회수하여 英祖7年本으로 修正增補 改張한 것으로 판단된다.

要語: 『璿源系譜紀略』, 『璿源譜略』, 목판인쇄술, 왕족, 족보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대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다.

** 대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yoonih@daejin.ac.kr)

접수일: 2014년 9월 11일 최초심사일: 2014년 9월 16일 심사완료일: 2014년 9월 27일

<ABSTRACT>

This article is a study that examines the process of *Sonwon-kyebo-kiryak* (璿源系譜紀略) Youngjo' 7th Year Edition.

The 7th Year Edition was completed on December 4, 1731 when political party strife was comparatively feeble. During the period, from 1728 to 1731, the Crown Prince, the last queen, and two of the king's daughters, by concubine, died, and an other daughter of the king, by concubine, received a glorious name. Meanwhile, a royal tomb called Changneung (長陵) was exhumed and buried in another place.

Comparing the 7th Year Edition with the 3rd Year Edition, the latter has three more items of introductory remarks(凡例) than the former.

In addition, the latter has five new modified leaves and more added in the Sonwon-sekye (璿源世系) and 6th part of *Sonwon-kyebo-kiryak* (璿源系譜紀略) 4th volume than the former. Therefore, three wood blocks, both sides of each block used, were added.

In conclusion, I was more than convinced that they reassembled The 3rd Year Editions and handed them back after changing some leaves.

Key words: *Sonwon-kyebo-kiryak*, *Sonwon-boryak*, wood block printing, royal family, genealogy

1. 緒言

『璿源系譜紀略』은 英祖朝 52年間(1724-1776)에 28回 重校補刊되었다. 그 중 英祖1年本, 英祖2年本, 英祖3年本, 英祖7年本까지 4種이 4冊本이고, 그 이후에는 7冊本, 8冊本の 형태로 그 변화를 보인다.

『璿源系譜紀略』 英祖7年本은 4冊本の 마지막 판본으로서 그 追載 內容은, 正祖7年本 이후 모든 板本の 總敍에 “七年辛亥秋九月重校補刊以新 長陵地名及 宣懿王后諡號之追載也”라고 요약되어 있다. 즉 仁祖와 仁祖妃의 陵인 長陵의 景宗 繼妃 宣懿王后의 諡號를 추가로 실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더 자세한 기록으로는 該當 板本 그 자체에 수록된 ‘凡例’가 있다. 거기에는 “一. 敬純王后諡號 仁祖大王 仁烈王后 遷陵地名 王世子諡號薨逝年月日墓號, 一. 翁主封爵及新生兩翁主 並添錄事, 一. 御牒依聖教只改張添修事(以上辛亥所錄)”이라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宣懿’라는 諡號를 받기 前인 당시의 칭호가 敬純王后였기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며, 長陵을 옮겼기에 遷陵地名이라 하였어도 위 總敍의 것과 같은 내용이며, 王世子인 孝章世子の 諡號와 薨逝한 날자와 墓의 이름을 添錄하였다. 그 외에 翁主의 封爵과 2명의 新生翁主에 관한 사항을 添錄하였고, 또한 御牒은 英祖의 명령에 따라 修正하여 改張했으며, 辛亥年인 英祖 7年에 수록했다는 것이다.

이들 기록을 기반으로 하여 英祖3年本 간행 이후 이 英祖7年本이 간행되기까지의 史的 背景을 파악하면서 이 판본의 간행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고, 판본 內容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當時의 王族의 事情을 상세히 들여다 본 후, 과연 英祖7年本이 英祖3年本에 비교해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서 간행했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에 주로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당시의 史的인 배경을 살펴보고, 『承政院日記』 등을 통해 英祖7年本의 간행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2. 刊行 當時의 史的 背景과 王族 事情

『璿源系譜紀略』 간행에 있어서 肅宗 5年 始刊本부터 肅宗7年本, 肅宗26年本, 肅宗28年本, 肅宗45,46年本, 景宗3年本을 거쳐 英祖1年本, 英祖3年本 등은 모두 그에 따른 儀軌가 있어서 간행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파악할 수 있지만, 肅宗39年本은 肅宗의 즉위 40주년 기념으로 존호를 올리는 간단한 작업이었고,¹⁾ 英祖2年本도 英祖1年本을 修正 改張한 것으로 ‘子孫錄’에는 변화가 없고, ‘璿源世系’ 上의 세 王妃 稱號를 변경하는 간단한 작업이었기에 儀軌가 없었던 것은 이해가 된다.²⁾

그런데 英祖7年本은 英祖3年本 간행 후 4년의 시간이 경과된 간행이라 儀軌가 있을 법도 한데, 이에 따른 儀軌가 없을 뿐만 아니라 實錄에서도 관련기사가 희박하다. 다만 『承政院日記』에 약간의 기록이 있다.

이 역시 수정 작업이 비교적 간단했기에 의궤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를 염두에 두고 當時의 史的 背景과 王族의 事情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刊行 當時의 史的 背景

『璿源系譜紀略』 英祖7年本 刊行의 歷史的인 背景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英祖3年本 刊行 이후부터 英祖7年本을 進上하기까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英祖1年에 단행했던 乙巳處分은 英祖 자신에 대한 世弟册封과 代理聽政을 지지하다 賜死된 노론 4大臣을 伸冤하고 소론에게 큰 타격을 입힌 것이다. 그 후 英祖는 蕩平을 실현하려는 의지 아래 2년여를 지켜보다가 老論에 대한 실망과 염증을 느낀 결과로 나타난 것이 丁未換局이며³⁾ 이는 英祖 3年 7月 1日 노론의 정권에서 소론의 정권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1)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肅宗39年本考,” 『書誌學研究』 제33집(2006. 6) 참조.

2)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英祖3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56집(2013. 12), 197.

3) 이성무 지음, 『조선당쟁사 2』 (동방미디어, 2000), 152.

『璿源系譜紀略』英祖3年本은 소론의 정권 하에서 그 해 10월 5일에 최초 발의 되어 11월 26일에 進上儀式을 거행하여 완성되었다. 丁未換局이 있는 지 약 5개월여 후이며, 『璿源系譜紀略』英祖3年本이 간행된 지 약 보름 후 즈음인 12월 12일에 전주에서 처음으로 掛書事件이 발생하였다. 이어 이틀 후에는 남원에서, 그리고 약 한 달 후인 英祖 4年 1월 11일에는 都城의 西小門에서까지 掛書가 발견된 것이다.⁴⁾ 그것의 주된 내용은 아마도 英祖는 肅宗의 아들이 아니고, 英祖가 景宗을 시해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⁵⁾

이렇게 시작된 掛書事件은, 乙巳處分에 의해서 소외된 소론과 肅宗時에 서인에 의해 축출된 남인 세력이 규합한 데서 출발한 것이다. 英祖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그 동안 점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마침내 英祖4年 3월에 嶺南의 李麟佐, 鄭希亮 등이 謀反하였다. 3월 15일에는 李麟佐가 淸州城을 함락하기에 이르렀고,⁶⁾ 3월 20일에는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서울을 침범하여 密豐君 李埴을 추대하려고 하였는데, 崔奎瑞가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여 英祖에게 고하였다.

이에 英祖는 兵曹判書 吳命恒을 四道巡撫使, 朴文秀와 趙顯命을 從事官으로 삼아 남쪽을 담당하게 하고, 다른 장수들을 기용하여 北漢城 아래에 진을 치게 하는가 하면, 한강 銅雀津을 防守하게 하고, 龍仁 등의 要路를 차단하고, 鼓巖, 鳥嶺, 洞仙嶺, 靑石嶺을 지키게 했다.⁷⁾ 전국적인 반란을 약 한 달 반만에 진압하였고, 체포되어 압송된 李麟佐를 27일에 斬首하였다.⁸⁾

한편 鄭希亮은 善山府使 朴弼健 등에게 격파되어 최후를 마쳤다.⁹⁾ 4월 19일에 吳命恒이 勝戰하고 돌아와 남쪽 성 밖에 진을 쳤는데 英祖가 崇禮門의 門樓에 올라가서 영접하였다고 한다.¹⁰⁾ 이 亂을 李麟佐의 亂, 또는 戊申亂이라 한다.

4) 『朝鮮王朝實錄』英祖 15卷, 4年(1728 戊申) 1월 17일 1번째 기사.

英祖는 이 掛書가 시차로 보아 동일인의 소행일 것으로 추측하였다.

5) 이성무 지음, 『조선당쟁사 2』(동방미디어, 2000), 154.

6) 『朝鮮王朝實錄』英祖 16卷, 4年(1728 戊申) 3월 15일(을축) 6번째 기사.

7) 『朝鮮王朝實錄』英祖大王 行狀.

8) 『朝鮮王朝實錄』英祖 16卷, 4年(1728 戊申) 3월 27일(정축) 1번째 기사.

9) 『朝鮮王朝實錄』英祖 17卷, 4年(1728 戊申) 4월 2일(임오) 2번째 기사.

이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후 王世子가 薨逝하였다. 英祖 4년에는 英祖가 闕外로는 반란을 막아야 했고, 闕內로는 왕실의 큰 아픔을 겪어야 했다. 『璿源系譜紀略』의 간행에 관련해서는 英祖가 왕세자를 잃은 지 약 한 달 후인 그해 12월 18일에 『璿源系譜紀略』 英祖3年本の 간행 당시에 校正廳을 設廳하였는지를 宗簿寺에 下問하는 정도의 첫 관심을 보인 바 있다.¹¹⁾

李麟佐의 亂은 소론급진파와 남인의 반란을 소론의 정국에서 진압하였기에 이후 英祖는 탕평정치에는 다소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英祖에게는 노론이 여전히 탕평의 최대 장애였으며, 노론은 그 亂을 빌미로 소론에 공세를 취하였다.

당시에 趙文命, 宋寅明, 趙顯命, 朴師洙, 李匡德 등이 李麟佐의 亂에 공을 세워 英祖의 신임을 받고 있었으며 이들은 蕩平派였다. 이들이 英祖를 보좌하는 가운데, 洪致中의 자문을 구하여 탕평의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 전략은 노론이 소론을 축출한 辛壬士禍에 대하여, 辛丑年의 延仍君 建儲問題는 忠으로 판단하고 壬寅年 三急手說은 逆으로 규정하는 半忠半逆의 논리였으며, 그들이 이로써 노론과 타협을 시도했다. 英祖는 이에 힘입어 英祖 5年 8월에 己酉處分을 내렸는데, 이는 노론과 소론을 併用하는 蕩平의 조치였다.¹²⁾

이로 인하여 黨爭이 다소 무마된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璿源系譜紀略』의 간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때와는 달리 刊行에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다. 英祖 7年 9월 21일에 『璿源系譜紀略』을 간행해서 奉安하라는 명령만 있었고,¹³⁾ 出草가 되어 중부시에서 고친 곳을 보여 드릴까 여쭙어도 英祖는 睿覽도 하지 않고 그냥 관각하라¹⁴⁾고 할 정도로 관심이 적은 듯했다. 設廳의 여부나 책임자 선발, 應行節目 마련 등 간행에 관련된 논의가 거의 보이지

10) 『朝鮮王朝實錄』 英祖 17卷, 4年(1728 戊申) 4월 19일(기해) 1번째 기사.

11) 『承政院日記』 英祖 4年 12월 18일(갑오).

12) 이성무 지음, 『조선당쟁사 2』 (동방미디어, 2000), 163-164. ;

『朝鮮王朝實錄』 英祖 23卷, 5年(1729 己酉) 8월 18일(경신) 2번째 기사.

13) 『承政院日記』 英祖 7年 9월 21일(신사).

14) 『承政院日記』 英祖 7年 9월 24일(갑신).

않는다. 게다가 進上하는 문체에 있어서도 다른 판본의 간행 때와는 사뭇 다르다. 10월 4일에 진상 계획을 세웠으나 提調 宋寅明의 갑작스런 發病으로 무산되었다가¹⁵⁾ 10월 10일에 아뢰기를 13일에 진상하기로 했는데,¹⁶⁾ 이 또한 宋寅明의 親病으로 무산되었다.¹⁷⁾ 12월 2일에 進上吉日을 12월 4일로 보고했는데,¹⁸⁾ 12월 4일의 당일의 기록에는 進上 記事도 없으며, 단지 12월 6일에 그 달 보름이 되기 전에 江華府 鼎足山城에 우선 奉安하라 지시한 기록만 보일 뿐이다. 필자는 여타의 판본 연구에서 進上이 되어야 간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아 왔기에, 이들 희소한 기록 속의 관련 기사에 근거하여 『璿源系譜紀略』 英祖7年本은 英祖 7年 12月 4일에 완성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이 판본은 여타의 판본과 달리 儀軌가 없으며, 대개는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의 記事가 일치하는데, 『朝鮮王朝實錄』에는 그 관련기사가 거의 없으며, 『承政院日記』에만 상기의 몇 가지의 근거 자료가 남아 있을 뿐이다. 항상 『璿源系譜紀略』의 간행과 관련해서는 事체가 莫重하다는 전제를 깔고 공문이 왕래했는데, 英祖의 관심도가 前例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후의 『璿源系譜紀略』 英祖11年本 간행에는 英祖와 宗簿寺의 관심도가 어떠한 지 궁금하다.

요컨대 『璿源系譜紀略』 英祖3年本은 英祖 3年 7月 初의 丁未換局으로 소론의 정권 하에서 11월 26일에 刊行된 후, 英祖 4年の 전반기에는 李麟佐의 난이 일어나 이를 평정하는 데 힘을 쏟았고, 후반기에는 王世子の 薨逝가 있어서, 英祖는 안팎으로 고충이 많았다. 하지만 英祖는 초지일관 蕩平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탕평과의 보좌를 받아 己酉處分을 내리고 탕평을 실현하여 당쟁이 다소 무마된 상황에서 英祖 7年 12월 4일 『璿源系譜紀略』 英祖7年本을 간행되었다. 그러나 조정의 이에 대한 관심도는 전례와는 달리 미약하였다.

15) 『承政院日記』 英祖 7年 10월 4일(갑오).

16) 『承政院日記』 英祖 7年 10월 10일(경자).

17) 『承政院日記』 英祖 7年 10월 13일(계묘).

18) 『承政院日記』 英祖 7年 12월 2일(신묘).

2.2 王族의 事情

英祖7年本의 간행 당시에는 肅宗의 繼妃 仁元王后와 英祖의 妃 貞聖王后가 생존해 있었고, 경종의 계비 宣懿王后¹⁹⁾가 英祖 6年(1730) 6월 29일에 後嗣 없이 26세에 타계하였다. 이에 앞서 英祖4年에 王世子가 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²⁰⁾ 이 王世子는 後宮 靖嬪 李氏의 所誕으로 孝章世子로 호칭하다가 후일에 眞宗으로 추존되었다. 英祖의 처지에서 보면, 비록 이복 형제로서 정치적으로 대립된 상황에 있었던 景宗의 繼妃였지만 혈족으로서는 형수가 되는 宣懿王后와 당시 하나뿐인 아들이 사망한 것이다.

<표 1> 肅宗, 景宗, 英祖, 眞宗, 莊祖 및 그 配偶者들의 生沒年紀와 享年

廟號	配偶者	誕降年紀	昇遐年紀	享年	비고
肅宗		顯宗2年 8월	肅宗46年	60세	
	仁敬王后	顯宗2年 9월	肅宗6年 10월	20세	
	仁顯王后	顯宗8年 4월	肅宗27年 8월	35세	
	仁元王后	肅宗13年 9월	英祖33年 3월	71세	* 英祖7年시 생존
	玉山府大嬪		肅宗27年 10월		賜死
	淑嬪崔氏 禋嬪朴氏		肅宗44年 3월 肅宗29年 7월		
景宗		肅宗14年 10월	景宗4年 8월	37세	
	端懿王后	肅宗12年 5월	肅宗44年 2월	33세	
	宣懿王后	肅宗31年10월	英祖6年 6월	26세	英祖3-7年本 사이 서거
英祖		肅宗20年 9월	英祖52年 3월	83세	
	貞聖王后	肅宗18年 12월	英祖33年 2월	66세	* 英祖7年시 생존
	貞純王后	英祖21年 11월	純祖5年 정월	61세	英祖33年 왕비 책봉
眞宗		肅宗45年 2월	英祖4年 11월	10세	英祖3-7年本 사이 서거
莊祖		英祖11年 정월	英祖38年 윤5월	28세	

19) 魚有龜의 여식으로 肅宗 31年(1705)에 나서 肅宗 44年(1718) 14세에 世子嬪에 冊封되고 景宗이 즉위하면서 1720년 16세의 나이로 王妃에 進封되었다.

20) 『朝鮮王朝實錄』 英祖 20권, 4年(1728 무신) 11월 16일(임술) 1번째 기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저시의 부인 徐氏²¹⁾가 英祖가 즉위하면서 王妃로 進封되었다가 英祖 33年 2월에 後嗣가 없이 타계했고, 英祖 35年 6월에 金漢耆의 女息을 繼妃로 맞이했으나 이 역시 後嗣가 없었다. 英祖의 일생에 있어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靖嬪 李氏, 暎嬪 李氏, 貴人 趙氏, 淑儀 文氏 등의 後宮에게서 王子 2명과 翁主 12명이 출생하였다. 王子 2명은 靖嬪 李氏 所生의 孝章世子와 暎嬪 李氏 所生의 思悼世子이고, 翁主 12명은 靖嬪 李氏 所生 2명, 暎嬪 李氏 所生 6명, 貴人 趙氏 所生 2명, 淑儀 文氏 所生 2명이다.

孝章世子는 病死하고 思悼世子는 窒息死했으며, 5명의 翁主는 封爵하기 전에 早卒하여 7명만 封爵되었는데, 靖嬪 李氏의 和順翁主, 暎嬪 李氏의 和平翁主, 和協翁主, 和緩翁主, 貴人 趙氏의 和柔翁主, 淑儀 文氏의 和寧翁主 등이 그들이다.

<표 2> 英祖의 배우자와 그 자녀 사항

묘호	자녀수	배우자	자녀수	자녀의 출생 순서
英祖	2남 12녀	妃 貞聖王后 徐氏	無嗣	
		繼妃 貞純王后 金氏	無嗣	
		後宮 靖嬪 李氏	1남2녀	제1남 眞宗, 제1녀 조졸, 제2녀 和順翁主
		後宮 暎嬪 李氏	1남6녀	제2남 莊祖, 제3녀 和平翁主, 제4녀 조졸, 제5녀 조졸, 제6녀 조졸, 제7녀 和協翁主, 제9녀 和緩翁主
		後宮 貴人 趙氏	2녀	제8녀 조졸, 제10녀 和柔翁主
後宮 淑儀 文氏	2녀	제11녀 和寧翁主, 제12녀 和吉翁主		

英祖7年本이 간행될 당시까지는 王子 1명과 翁主 5명이 출생하였는데, 王子는 10세에 타계하고, 翁主는 3명이 조졸하고 和順翁主와 和平翁主만 생존하고 있었다. 결국 6명의 자식 중에 4명이 죽고 2명만 남았으며, 그 중에 특히 王世子가 운명을 달리했으니 당시 英祖의 심기가 어떠하였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 게다가 英祖는 英祖1年本을 간행할 적부터 4책의 『璿源系譜紀略』을 새로이 판

21) 徐宗悌의 여식으로 肅宗18年(1692)에 출생하여 肅宗 30年(1704)에 13세로 嘉禮를 올렸다.

각하는 것을 지양하고 꼭 고쳐야 할 부분만 새로 판각하여 개정할 것을 강조한²²⁾ 것을 보면 英祖는 『璿源系譜紀略』 간행의 일에 國庫의 낭비를 우려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英祖7年本의 刊行은 자식들을 잃은 비통함에서인지 英祖에게 경사스럽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英祖3年本이 간행된 이후 英祖7年 간행의 사이에 英祖를 기준으로 王族의 事情을 尊屬과 卑屬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卑屬에 있어서는 和順翁主를 封爵한 것이 英祖 元年 2月이고²³⁾ 보면 제1 옹주는 그 전에 사망하였고, 英祖 4年 11月에 王世子の 타계와 英祖 7年 2月²⁴⁾과 英祖 7年 3月²⁵⁾에 각각 두 翁主가 卒逝한 사실 외에, 英祖 7年 7月에 和平翁主의 封爵이 있었다. 尊屬에 있어서는 英祖 6年 6월에 敬純王大妃 魚氏 즉 宣懿王后가 승하하고²⁶⁾ 諡號를 宣懿, 徽號를 孝仁惠睦, 殿號를 敬徽, 陵號를 懿陵이라 정하였다.²⁷⁾

그리고 英祖 7年 3월에는 과주에 소재한 仁祖와 仁烈王后의 陵인 長陵의 移葬 문제가 제기되었다. 長陵을 奉審하였더니 陵寢 사이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드나 든다는 것이었는데,²⁸⁾ 다시 봉심한 趙文命의 보고에 의하면 이틀 사이에 아홉 마리의 뱀을 목격했고, 큰 것은 서까래만 하고 작은 것은 낫자루만 하다는 것이었다.²⁹⁾ 많은 논의와 답사를 거친 후 그해 8월 30일에 遷奠하였다.³⁰⁾

요컨대 『璿源系譜紀略』 英祖3年本이 英祖 3年 11월 26일에 진상된 이후 英祖 7年本이 간행되기까지 왕족의 사정은 孝章世子가 薨逝하고 두 新生翁主가 사망하였으며, 王大妃 宣懿王后가 승하하고, 和平翁主의 封爵이 있었으며 仁祖와 仁烈王后의 陵인 長陵을 遷陵하였다.

22)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 (藏 2-3838, M35-543) 張2-3. 甲辰 10월26일.

23) 『朝鮮王朝實錄』 英祖 3권, 1年(1725 乙巳) 2月 18日(丙戌) 5번째 기사.

24) 『承政院日記』 英祖 7年 2월 18일(신해) 1731年.

25) 『承政院日記』 英祖 7年 3월 21일(갑신) 1731年.

26) 『朝鮮王朝實錄』 英祖 26권, 6年(1730 경술) 6월 29일(병인) 1번째 기사.

27) 『朝鮮王朝實錄』 英祖 27권, 6年(1730 경술) 7월 6일(계유) 2번째 기사.

28) 『朝鮮王朝實錄』 英祖 29권, 7年(1731 신해) 3월 16일(기묘) 1번째 기사.

29) 『朝鮮王朝實錄』 英祖 29권, 7年(1731 신해) 3월 19일(임오) 1번째 기사.

30) 『朝鮮王朝實錄』 英祖 30권, 7년(1731 신해) 8월 30일(경신) 1번째 기사.

3. 英祖3年本과 英祖7年本の 비교

『璿源系譜紀略』의 판본을 세밀히 비교해야 하는 이유는, 예컨대 4책본 완질의 경우 肅宗46年本은 一次로 肅宗 45年 9월 10일에 進上하고 撤局함으로써 간행이 완성된 판본이 있었는데, 반사 부족분을 더 만들었다가 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여 그 肅宗45年本을 모두 肅宗 46年 3월 26일에 改張修正本으로 일체를 교체한 것인가 하면³¹⁾ 景宗3年本은 肅宗46年本을 회수하여 어첩의 변화부분을 수정하고 자손록 중 辛壬黨禍에 연루되어 처벌된 기록을 추가하였고,³²⁾ 英祖1年本은 肅宗46年本과 景宗3年本을 회수하여 개장하였고,³³⁾ 英祖2年本은 英祖1年本의 進上本과 進獻本만 약간 개장하였으며,³⁴⁾ 英祖3年本은 英祖1年本과 英祖2年本을 일부 補孔, 改板하여 간행했기에 각 판본의 차이가 미세하고, 모두 4책 완질본으로 서로 뒤섞인 사례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璿源系譜紀略』英祖7年本은 6권4책으로 表紙, ‘璿源系譜紀略凡例’,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璿源系譜紀略 卷之一 ~ 卷之六’, 跋文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단락마다 張次가 별도로 매겨져 있으며, ‘璿源系譜紀略 卷之一 ~ 卷之六은 5단으로 항렬을 달리 했으며 특히 각 인물간의 상호참조 표시를 위해 各張의 版心 右側 上段의 右葉 書眉에 千字文을 매겨 두었다. 그 書影을 보면 <書影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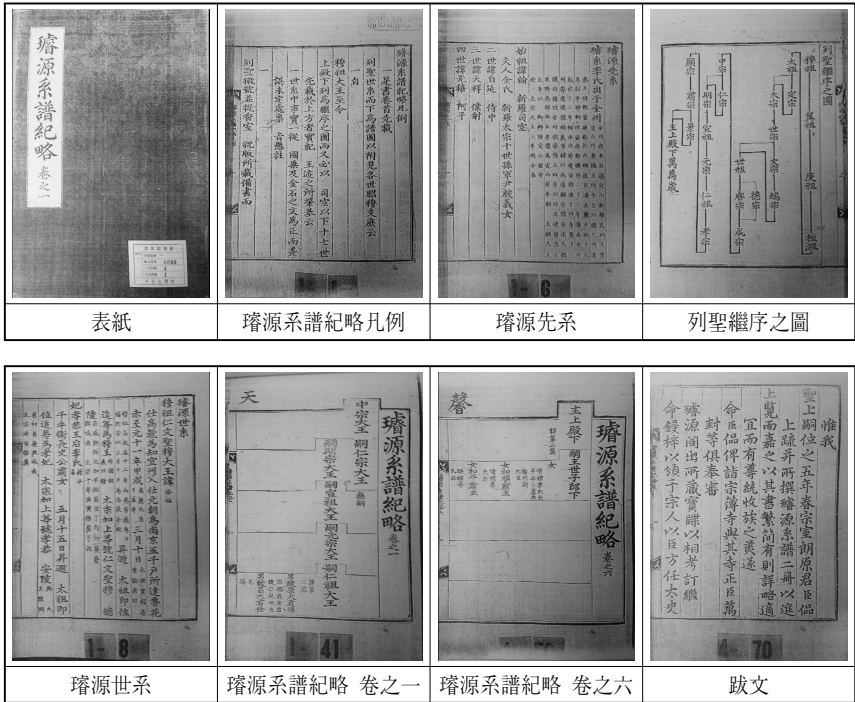
31)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肅宗4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20집(2000. 12), 152-154.

32) 윤인현, “景宗朝 『璿源系譜紀略』 板本考,” 『杏簡尹泳大博士華甲紀念論文集』(1997. 11), 336-341. ;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景宗3年本 간행과정고,” Central 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7(October 2005), 162-163 참조.

33)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英祖1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48집(2011. 6), 315-316.

34)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英祖3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56집(2013. 12), 211.



<書影 1> 『瑤源系譜紀略』英祖7年本

英祖3年本을 ‘영3’, 英祖7年本을 ‘영7’로 표현하고, ‘前 板本에 없던 전혀 새로운 내용을 새 木板에 판각하고 인출한 것’을 ‘新板’, ‘前 板本에 있던 부분이지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되어 새 木板에 板刻 印出한 것’을 ‘改版’, ‘前 板本의 木板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수정해야 할 行마다 세로로 긴 막대 나무판을 붙이고 글자를 새긴 것’을 ‘補空’, 그리고 註는 () 속에 넣고, ‘註의 행 바꿈’을 ‘/’로 표현하여, 英祖3年本에서 英祖7年本으로 변화된 내역을 파악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1) 凡例 第5張의 비교.
- 영3: 第1冊 凡例 총 29個條.
- 영7: 第1冊 凡例 第30條 第31條 第32條 등 3個條 추가.

추가 내용:

第30條: 一. 敬純王后諡號 仁祖大王 仁烈王后 遷陵地名 王世子諡號薨逝年月日墓號

第31條: 一. 翁主封爵及新生兩翁主 並添錄事

第32條: 一. 御牒依聖教只改張添修事(以上辛亥所錄)

요약: 凡例 第5張의 左葉에 상기 내용을 10行 補空.

2) 璿源世系 第31張 改板.

改板의 근거: 魚尾의 모양이 다름.

字樣의 현저한 차이: 第31張 右葉 11行 第5字 ‘册’ <영3, 영7>

第31張 左葉 9行 第6字 ‘追’ <영3, 영7>

내용 수정: 第31張 右葉 第11行: 繼妃敬純 王大妃殿下魚氏(籍咸從) <영3>

繼妃敬純宣懿孝仁惠穆王后魚氏(籍咸從) <영7>

3) 璿源世系 第32張 改板

改板의 근거: 魚尾의 모양이 다름.

추록: 第32張 右葉 第4行 丙午上尊號敬純 <영3>

第32張 右葉 第4-6行 丙午上尊號敬純 上六年庚戌六月二十九日丙寅昇遐于慶德宮之魚藻堂春秋二十六無嗣 懿陵(與 大王陵同原庚戌十月十九日葬) <영7>

字樣의 현저한 차이: 第32張 右葉 第8行 第15字 ‘弟’ <영3>

第32張 右葉 第10行 第15字 ‘弟’ <영7>

추록: 第32張 左葉 第9行 三女(淑儀李氏出) <영3>

第32張 左葉 第11行 三女和平翁主(暎嬪李氏出) <영7>

4) 璿源世系 第33張 改板

改板의 근거: 魚尾의 모양이 다름.

추록: 第33張 右葉 第1行 四女(暎嬪李氏出○早卒) <영3>

第33張 右葉 第2行 五女(暎嬪李氏出○早卒) <영7>

수정: 第32張 左葉 第10行 王世子邸下諱(糸+辛)字(聖敬) <영3>

第33張 右葉 第3行 孝章世子邸下諱(糸+辛)字(聖敬) <영7>

추록: 第33張 右葉 第2行 入學行冠禮 <영3>

第33張 右葉 第6-8行 入學行冠禮戊申十一月十六日壬戌薨逝于昌慶宮之進修堂春秋十無嗣孝章墓(在坡州順陵左岡乙坐辛向己酉正月二十六日葬) <영7>

수정: 第33張 右葉 第4-6行 參判文命女… 嘉禮于於義洞本宮(孝宗潛邸) <영3>

第33張 右葉 第10行-左葉 第1행 左議政豐陵府院君文命女… 嘉禮于於義洞本宮(孝宗潛邸) <영7>

5) 璿源系譜紀略 卷之六 第1張 改板

改板의 근거: 魚尾의 모양이 다름.

- 수정: 卷之六 第1張 右葉 第2段 女(淑儀李氏出) <영3>
 卷之六 第1張 右葉 第2段 女 和平翁主(暎嬪李氏出) <영7>
 추록: 卷之六 第1張 左葉 第2段 … <영3>
 卷之六 第1張 左葉 第2段 女(暎嬪李氏出早卒○墓在高陽清潭村)
 女(暎嬪李氏出早卒○墓在高陽清潭村) <영7>
 수정: 卷之六 第1張 左葉 第1段 延齡君田(… ○娶商山金氏及第東弼女○…) <영3>
 卷之六 第1張 左葉 第1段 延齡君田(… ○娶商山金氏判書東弼女○…) <영7>

6) 璿源系譜紀略 卷之六 第2張 改板

改板의 근거: 魚尾의 모양이 다름.

- 수정: 卷之六 第2張 右葉 第2段 女金時筓(父佐郎/盛道) <영3>
 卷之六 第2張 右葉 第2段 女金時筓(父佐郎盛道) <영7>
 수정: 卷之六 第2張 右葉 第2段 女趙明箕(父正/正萬) <영3>
 卷之六 第2張 右葉 第2段 女趙明箕(父正正萬) <영7>
 수정: 卷之六 第2張 右葉 第1段 沈曾賢(父混○見餘) <영3>
 卷之六 第2張 右葉 第1段 沈曾賢(父混○見餘) <영7>
 수정: 卷之六 第2張 右葉 第2段 子沈鎰(娶縣監/趙純女) <영3>
 卷之六 第2張 右葉 第2段 子沈鎰(娶縣監趙純女) <영7>
 수정: 卷之六 第2張 右葉 第1段 申瑩(察訪○見餘) <영3>
 卷之六 第2張 左葉 第1段 申瑩(察訪○見餘) <영7>
 수정: 卷之六 第2張 左葉 第2段 子/子/子/子/女/女 <영3>
 卷之六 第2張 左葉 第2段 子/子/子/女/女 <영7>
 수정: 卷之六 第2張 左葉 第1段 沈師孟(見/成) <영3>
 卷之六 第2張 左葉 第1段 沈師孟(見成) <영7>
 수정: 卷之六 第2張 左葉 第1段 沈師周(娶郡守李見舟/臣女○見成/廢) <영3>
 卷之六 第2張 左葉 第1段 沈師周(娶郡守李見舟臣/女○見成廢) <영7>

이상의 대비 사항을 요약하여 英祖3年本과 英祖7年本の 구성을 英祖7年本을 기준으로 표화하면 <표 3>과 같다.

<표 3> 『璿源系譜紀略』 英祖3年本과 英祖7年本の 구성과, 7年本 기준 修正處

권책	책자	단원	張數	참조를 위한 千字文(숫자는 보충) 張次 표시
6권 4책	제1책	凡例 32條	5張	(英祖3年本은 29條: 第5張 左葉 10行 補宗)
		璿源先系	1張 半	
		列聖繼序之圖	半張	
		璿源世系	33張	(第31-33張 改板)
		璿源系譜紀略 卷之一	24張	天001地002玄003黃004 宇005宙006洪007荒008 日009月010盈011昃012 辰013宿014列015張016 寒017來018暑019往020 秋021收022冬023藏024

『璿源系譜紀略』英祖7年本 刊行過程考

권책	책차	단원	張數	참조를 위한 千字文(숫자는 보충) 張次 표시
6권 4책	제1책	璿源系譜紀略 卷之二	27張	閏025餘026成027歲028 律029呂030調031陽031 雲033騰034致035雨036 露037結038爲039霜040 金041生042麗043水044 玉045出046崑047崗048 劍049號050巨051
	제2책	璿源系譜紀略 卷之三	80張	關052 珠053稱054夜055光056 果057珍058李059奈060 菜061重062芥063薑064 海065鹹066河067啖068 鱗069潛070羽071翔072 龍073師074火075帝076 鳥077官078人079皇080 始081制082文083字084 乃085服086衣087裳088 推089位090讓091國092 有093處094陶095唐096 弔097民098伐099罪100 周101發102殷103湯104 坐105朝106問107道108 垂109拱110平111章112 愛113育114黎115首116 臣117伏118戎119羌120 遐121邇122臺123體124 率125賓126歸127王128 鳴129鳳130在131
	제3책	璿源系譜紀略 卷之四	87張	樹132 白133駒134食135場136 化137被138草139木140 賴141及142萬143方144 盖145此146身147髮148 四149大150五151常152 恭153惟154鞠155養156 豈157敢158毀159傷160 女161慕162貞163烈164 男165效166才167良168 知169過170必171改172 得173能174莫175志176 罔177談178彼179短180 靡181恃182已183長184 信185使186可187覆188 器189欲190難191量192 墨193悲194絲195染196 詩197讚198羔199羊200 景201行202維203賢204 剋205念206作207聖208 德209建210名211立212 形213端214表215正216 空217谷218
	제4책	璿源系譜紀略 卷之五	49張	傳219聲220 虛221堂222習223聽224 禍225因226惡227積228 福229緣230善231慶232 尺233璧234非235寶236 寸237陰238是239競240 資241父242事243君244 日245嚴246與247敬248 孝249當250竭251力252 忠253則254盡255命256 臨257深258履259薄260 夙261興262溫263清264 似265蘭266斯267
		璿源系譜紀略 卷之六	20張	(第1-2張 改板) 馨268 如269松270之271盛272 川273流274不275息276 淵277澄278取279映280 容281止282若283思284 言285辭286安287
		跋文 6건	19張	金錫胄 3張, 吳道一 4張, 宋相琦 3張, 李觀命 3張, 趙泰億 3張, 李宜顯 3張
			346張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璿源系譜紀略』 英祖3年本과 英祖7年本の 비교

			英祖3年本	英祖7年本	비고
6권 4책	제1책	凡例	5張, 총 29條	5張, 3個條 추가, 총 32條	凡例 第5張 左葉에 10行 補空
		璿源先系	1張 半	1張 半	同一
		列聖繼序之圖	半張	半張	同一
		璿源世系	33張	33張	第31,32,33張 改板
		璿源系譜紀略 卷之一	24張	24張	同一
		璿源系譜紀略 卷之二	27張	27張	同一
	제2책	璿源系譜紀略 卷之三	80張	80張	同一
	제3책	璿源系譜紀略 卷之四	87張	87張	同一
	제4책	璿源系譜紀略 卷之五	49張	49張	同一
		璿源系譜紀略 卷之六	20張	20張	第1,2張 改板
합계	6권4책		346張	346張	10行 補空, 5張 改板

요컨대 英祖7年本은 英祖3年本에 대비하여 凡例에서 그 항목 수가 29個條에서 32個條로 늘어나면서 10行을 補空하였고, ‘璿源先系’와 ‘列聖繼序之圖’는 변함이 없으며, ‘璿源世系’에서 第31,32,33張을 改板하였으며, ‘璿源系譜紀略 卷之一 ~ 卷之五’는 변함이 없고, ‘璿源系譜紀略 卷之六’의 第1,2張 改板하였다. 결국 英祖3年本 舊板木의 10行을 補空하고 5張을 改板한 셈이다. 그러면 補空木 약간과 兩面을 板刻할 수 있는 새 木板 3立이 소용되었을 것이다. 추정컨대 英祖3年本을 모두 회수하여 英祖7年本으로 修正增補 改張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현재 英祖3年本은 稀少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만 유일본³⁵⁾이 남아 있다.

35) M35-4802 璿源系譜紀略 (2-1024): 高宗年間(1893-1896) 同書 2부.

목록이 실물과 전혀 다르다. 1부는 靑色 無紋表紙이고 다른 1부는 靑色 有紋表紙인데, 전자는 第1,4冊이 肅宗46年本이고 第2,3冊은 後考를 기다리며, 후자가 英祖3年本이다.

4. 結 言

이상에서 추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璿源系譜紀略』英祖3年本은 英祖 3年 7月 初의 丁未換局으로 소론의 정권 하에서 11월 26일에 간행된 후, 英祖4년에 전반기에는 李麟佐의 亂이 일어나 이를 평정하였고, 후반기에는 王世子の 薨逝가 있어서 英祖는 안팎으로 고충이 많았다. 하지만 초지일관 탕평에 대한 의지를 가졌으며, 탕평과 신하들의 보좌로 己酉處分을 내렸다.

이에 蕩平에 더 박차를 가하여 당쟁이 다소 무마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英祖 7年 12월 4일 『璿源系譜紀略』英祖7年本을 완성하여 간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심도는 前例와는 달리 미약하였다.

같은 기간에 王族의 事情은, 孝章世子가 薨逝하고 두 新生翁主가 早卒하였으며, 王大妃 宣懿王后가 승하하고 和平翁主의 封爵이 있었으며 仁祖와 仁烈王后의 陵인 長陵을 遷陵하였다.

『璿源系譜紀略』英祖7年本은 英祖3年本에 대비하여 ‘凡例’에서 그 항목 수가 29個條에서 32個條로 늘어나면서 10行을 補空하였고, ‘璿源先系’와 ‘列聖繼序之圖’는 변함이 없으며, ‘璿源世系’에서 第31,32,33張을 改板하였으며, ‘璿源系譜紀略 卷之一 ~ 卷之五’는 변함이 없고, ‘璿源系譜紀略 卷之六’의 第1,2張을 改板하였다. 결국 英祖3年本の 舊板木의 10行을 補空하고 5張을 改板한 것이다.

板木의 需要를 계산하면, 補空木 약간과 兩面을 板刻할 수 있는 새 木板 3立이 소용되었을 것이며, 英祖3年本을 모두 회수하여 英祖7年本으로 修正增補改張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璿源系譜紀略』宗簿寺編. 英祖 7년. 奎8649.

『璿源系譜紀略』(藏 2-1024, M35-4802) 高宗年間(1893-1896) 同書 2부.(藏書閣本).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

윤인현. “景宗朝 『璿源系譜紀略』 板本考.” 『杏簡尹泳大博士華甲紀念論文集』(1997. 11).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경종3年本 간행과정고.” Central 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7(October 2005).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肅宗39年本考.” 『書誌學研究』 제33집(2006. 6).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肅宗4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20집(2000. 12).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英祖1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48집(2011. 6)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英祖3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56집(2013. 12).

이성무 지음. 『조선당쟁사 2』. 동방미디어, 2000.